

2022 9평 대비 OX 130제

1	기술윤리학은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2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은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다.	
3	밀은 인간이 완전무결한 존재임을 주장한다.	
4	밀은 감각적 경험만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5	밀에 따르면 각자는 자기 자신만이 적용을 받는 행위들에 대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6	유교는 덕(德)과 예로써 이기적 본성을 교화해 도덕성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7	불교는 탐욕에서 벗어나면 불성(佛性)을 형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 불변하는 실체와의 합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9	도가와 유교는 모두 이상적 인간인 성인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	칸트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의 실천은 항상 영속적 행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11	벤담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증진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은 양립할 수 있다.	
12	매킨타이어는 행위자의 실천 의지보다 도덕 법칙의 이행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13	불교는 현세에서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본다.	
14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무(無)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본다.	
15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본다.	
16	하이데거는 죽음의 가능성이 현존재가 떠맡아야 하는 존재함의 방식이라고 본다.	
17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더라도 의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18	싱어는 인간과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본다.	

19	레건에 따르면 고통에 대한 감응력은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20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21	성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떠한 성적 관계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22	형제는 서로에게 권면(勸勉)하며 우애의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23	형제는 다투고 대립하는 경쟁적 관계이면서 서로 친애하는 협동적 관계이다.	
24	맹자는 백성들의 교화(教化)가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의 안정을 위한 직업의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5	순자와 맹자는 둘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서로 유기적 관계라고 본다.	
26	순자는 플라톤과 달리 사회적 역할이 덕에 따라 분배되어야 공정하다고 본다.	
27	칼뱅은 모든 물질을 신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28	플라톤은 공직의 자격은 누구나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9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백성들이 욕망 자체를 버리게 해야 한다.	
30	마르크스는 임금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한다고 본다.	
31	마르크스는 기술적 분업의 확대가 노동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생산성을 하락시킨다고 본다.	
32	퍼트남은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수직적 상호 작용을 대표한다고 본다.	
33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수록 법적 규제의 경향성이 자율적 규제보다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34	니부어는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3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36	롤스는 모두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37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다수결 절차에 따라 합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38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자의 복리(福利)에 관심을 갖는다.	
39	왈처는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40	왈처는 모든 가치가 자유 교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1	칸트는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42	칸트는 형벌은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43	벤담은 더욱 해로운 위법 행위보다는 차라리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44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추구하는 선과 시민이 추구하는 선이 서로 무관하다고 본다.	
4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46	로크는 국가의 통치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47	루소는 홉스, 로크와 달리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라고 보았다.	
48	루소는 주권이 분할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49	맹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주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	맹자와 플라톤은 모두 사회적 분업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51	묵자는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타국에 적용하는 인(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52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 변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	
53	롤스는 사회적 부정의로 자유를 침해받아 온 소수자의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54	롤스는 사적 소유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55	소로는 롤스와 달리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로 본다.	
56	싱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57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부당성을 정당화하는 최선의 논거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보았다.	
58	요나스는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자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59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호혜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60	요나스와 칸트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 존재한다고 본다.	
61	칸트, 싱어, 레건 셋 다 사유 능력을 지닌 존재는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62	레건과 레오폴드는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63	테일러는 인간이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64	레오폴드는 대지가 인간이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	
65	유교와 도가는 모두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66	도가는 자연이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67	칸트는 미는 도덕과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68	칸트는 미는 이성적인 것에서 감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본다.	
69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으로 예술의 교환 가치적 특성은 약화된다고 본다.	
70	볼노브는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고 본다.	
71	합리적 소비는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이다.	
72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73	엘리아데는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74	엘리아데는 성이 현현되는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75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움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76	퀸은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77	칸트는 실천 이성을 지닌 존재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본다.	
78	공리주의는 칸트, 하버마스와 달리 도덕규범의 도출을 위해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79	하버마스는 이해 당사자는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80	하버마스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81	하버마스는 보편적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상호 주관적 산물이라고 본다.	
82	분단비용은 통일비용과 달리 생산적인 비용이다.	
83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익을 넘어서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본다.	
84	갈통은 직접적 폭력이 간접적 폭력보다 항상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85	갈통은 평화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86	갈통과 칸트는 국가의 통치 방식과 정치 체제가 진정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87	갈통은 구조적 폭력은 문화적 폭력과 달리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형성한다고 본다.	
88	갈통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는 행위자에 의해 언제나 의도된 것이라고 본다.	
89	칸트는 단일한 세계 정부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90	칸트는 국가 간의 평화 조약만으로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91	노직은 원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92	롤스는 원조는 모든 비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93	롤스와 싱어는 원조에 의한 부권주의적 간섭은 적정 수준의 정부를 갖춘 사회에 대해서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94	롤스와 달리 싱어는 해외 원조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5	싱어는 원조는 상호 경제력을 고려하지 말고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본다.	

빠른 정답

1	O	11	O	21	X	31	X	41	X
2	X	12	X	22	O	32	X	42	X
3	X	13	O	23	O	33	X	43	O
4	X	14	X	24	X	34	O	44	X
5	O	15	X	25	O	35	O	45	X
6	X	16	O	26	X	36	O	46	X
7	X	17	O	27	O	37	X	47	O
8	X	18	X	28	X	38	O	48	O
9	O	19	X	29	X	39	X	49	X
10	X	20	X	30	X	40	X	50	O

51	X	61	O	71	O	81	O	91	X
52	X	62	X	72	O	82	X	92	X
53	O	63	O	73	X	83	X	93	X
54	O	64	X	74	X	84	X	94	X
55	X	65	O	75	O	85	O	95	X
56	X	66	X	76	O	86	O		
57	X	67	X	77	X	87	X		
58	O	68	X	78	X	88	X		
59	X	69	X	79	O	89	X		
60	O	70	X	80	O	90	X		